



정부가 인증한 1등급 의료기관, 고려대학교병원 급성심근경색 치료 및 혈액투석 분야 국내 최상위 등급 받아 임상 저력 발휘해

‘급성심근경색 진료 1등급 기관’ 선정

“신속한 치료와 낮은 사망률로 인정받아”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중인 급성심근경색 환자



심혈관센터 임도선 교수팀이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병원(원장 김창덕)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가감지급평가에서 급성심근경색증 부문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진료 적정성을 평가해 양호한 곳에는 인센티브를, 불량한 곳에는 불이익을 주는 가감지급사업을 시행한 결과이다.

병원도착 30분 이내 투약 및 90분 이내 프라이머리 PCI 실시율 100점 만점받아

평가대상은 지난해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급성심근경색증 확진 환자로 대상 기관수는 총 189개(상급종합병원 44개, 종합병원 145개)였으며, 서울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6곳 뿐이다. 평가지표는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건수, 병원도착 3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병원도착 90분 이내 프라이머리 PCI 실시율, 병원도착시 아스피린 투여율,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시 베타차단제 처방률,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 등 7개 항목이었다. 고대 안암병원은 7개 세부지표별 결과 중 병원도착 3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병원도착 90분 이내 프라이머리 PCI 실시율에서 각각 100점을 받는 등 대부분 지표의 점수가 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고의 심혈관센터 재인증

심평원은 일반인들의 병원 선택에 참고하도록 각종 평가 결과를 병원별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표기해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하고 있다. 내년부터 감액기준선을 넘지 못하는 병원은 감액처분을 받게 되며, 하위등급 병원들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기도 하다. 한편, 고대 안암병원 심혈관센터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지명도가 높은 전문 인력과, 최신의 장비를 갖춘 최고의 시설을 보유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수준의 심장혈관질환 전문치료센터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임도선 교수는 “심혈관센터는 표준진료지침(CP, Critical Pathway)설립, 스마트폰을 통한 24시간 심혈관센터 전문의 연결로 심장혈관이 막힌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는 시간을 90분 이내(심평원 권장치료시간 120분)로 실현했다”고 강조했다.

심근경색, 병원 따라 사망률2배차

평가 결과 1등급 병원과 5등급 병원은 의료의 질에서 차이가 크게났다. 진료과정뿐 아니라 입원 30일 이내에 사망률 평균이 각각 5.5%와 11.6%로 벌어지기도 한다. 급성심근경색증은 초기 대응이 생사를 가를 수 있어 좋은 평가를 받은 가까운 병원에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면에 계속]

이화발전기금기부

11.06.02	박시영	₩ 5,000,000
11.06.02	김재홍	₩ 10,000,000
11.06.01	의과대학29회동기회	₩ 15,000,000
11.06.15	권오경	₩ 300,000
11.07.14	박창현	₩10,000,000
11.07.22	김백현	₩1,000,000
11.08.26	김영철	₩ 10,000,000
11.06.14	서병무	₩ 1,500,000
11.08.26	의과대학44회동기회	₩ 140,000,000

11.06.28	한성테크	₩ 2,500,000
11.07.15	(주)아이앤씨폴서비스	₩ 3,600,000
11.07.25	굿푸드	₩ 5,000,000
11.08.05	한국 RMS(주)	₩ 4,200,000
11.08.08	(주)아이앤씨폴서비스	₩ 10,000,000
11.08.25	뉴케어메디컬시스템	₩21,900,000
11.10.07	김철민	₩ 5,000,000
11.09.30	김관임	₩ 6,000,000
11.10.19	허기웅,송태순	₩ 10,000,000



고려대 안암병원은 JCI 인증을 획득한
세계가 인정한 가장 안전한 병원입니다.

[1면에 이어]

혈액투석 '1등급' 高大병원

심평원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최상위 등급 인정받아



인공신장실 전경




신장내과 조원용 교수가 혈액투석 환자를 살펴보고 있다

64개 의료기관대상 조사, 혈액투석 최고 평가 받아

고려대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실시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최상위등급인 1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는 심평원에서 지난해 10월~12월까지 외래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이상의 64개 기관을 선정, 혈액투석과

관련한 인력, 장비, 환자 관리 등 1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4곳, 종합병원 168곳, 병원 88곳, 의원 310곳이었으며, 평가결과 전국에서 1등급을 받은 상급종합 의료기관은 22곳 뿐이다. 고대병원이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은 그동안 투석환자들을 위해 전문 의료진과 첨단 의료기기를 갖추고 환자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왔던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혈액투석은 오랜 기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석 전문가로부터 안전한 진료를 받는 것과 더불어 환자들의 삶의 질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최근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적정성 평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혈액투석적절도 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등 대부분지표에서 최고점수 받아

고대병원은 11개 세부지표별 결과에서 수질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혈액투석적절도 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혈액투석 적절도 재검사실시충족률, 동정맥류 협착증 모니터링 충족률에서 각각 100점을 받는 등 대부분 지표의 점수가 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덕 병원장은 “신장투석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최선의 진료를 위해 노력해왔던 것이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서 기쁘다”며 “앞으로 1등급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환자 안전과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암병원 인공신장실은 중환자실환자의 치료를 위한 지속적 혈액투석기(CRRT) 3대를 도입하는 등 현재 최신 투석기 총 34대를 운영하며 환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양팀, 재활의학과, 감염내과, 의료사회사업팀, 약제팀으로 구성된 신장전문교육팀을 구성, 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각종 신장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안과 김효명 교수, “한국형 건성안 치료 발판 다졌다”

[특 집]




안과 김효명 교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건성안 치료 기대 높여

건성안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한국형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향후 진단 및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대병원 안과 김효명(金曉鳴, 54)교수가 최근(11월 6일) 안과 추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된 ‘한국각막질환연구회’에서 ‘건성안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건성안은 노인 인구의 급증과 환경이나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최근 유병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질병이다.

그러나 명확한 임상 지침이 국내에 없어 진단상의 혼란이 많았다. 이에 한국각막질환연구회에서는 2년 전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병원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연구(주연구자, 고대 안암병원 김효명 교수)를 시작했고 이번에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한국형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구미에서 사용하던 지침에 비해 간결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년간의 연구과정 결실맺어, 건성안 치료 지침 마련

구체적으로는 건성안에 합당한 안구자극증상이나 시력 증상을 동반하면서 눈물에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를 건성안이라 정의하였고, 치료는 안구 표면 염증 정도를 관찰하여 정도에 따라 4개의 레벨로 분류하고, 각 레벨별로 맞춤형 치료 지침을 따르도록 했는데 특징이 있다. 즉, 임상에서 간편하게 건성안을 중등도에 따라 진단 분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국에서 건성안을 전공으로 하는 안과전문의가 100% 참가한 첫 연구로서, 2년여의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의미가 크다”며, “국내 지침이 만들어짐에 따라 앞으로 건성안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래 | 안과 02)920-5520

소화기내과, 세계무대에서 눈부신 성과 이뤄

[스페셜리포트 1]



술대회 기간 동안 안암병원 소화기내과는 한국 단일 센터로는 유일하게 10개에 달하는 연계를 발표해 세계 각국의 소화기학 연구자 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고려대병원 소화기내과의 연구팀이 수상한 Top poster 연계는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조기위암 치료법인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를 주제로 했다.

국제특허를 획득한 '다광자 표시자' 대규모 국책과제 수행해

Travel grant를 수상한 연계는 고대의대 전훈재·김은선 교수·고대 이과대학 화학과 조봉래 교수팀이 공동으로 연구한 차세대 3D 이미징 관찰 기법인 다광자 현미경(Multiphoton microscope)을 이용한 연구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다광자 현미경 관찰을 위해 화학과와 공동 연구 중인 다양한 다광자 표시자(Multiphoton probe)는 이미 국제특허를 획득하였으며, 현재 이를 대장암, 역류성 식도염에 적용하는 대규모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소화기센터 전훈재 교수는 “눈부신 소화기학발전의 중심에 대한민국 의료진이 포진해 있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한국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 주목하고 있다”며 “고대병원 소화기내과는 위정맥류를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

하고 위암내시경 점막절제술과 캡슐 내시경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등 소화기학 각종 분야에서 미국 및 유럽의 치료 성적을 뛰어 넘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개최된 유럽연합 소화기학회 학술대회는 전세계의 150여개국만 오천여 명의 소화기학 관련 연구자들이 참가해 3천5백여 편의 방대한 학술 연구 발표를 진행한 세계 최고 권위와 위상을 자랑하는 국제적인 학술대회다.

외래 | 소화기센터 02)920-6551

제19회 유럽연합 소화기학회 학술대회서 4개부문 수상

고려대병원 소화기내과가 지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19회 유럽연합 소화기학회 학술대회' (2011 UEGW, 19th United European Gastroenterology Week)에서 Travel grant 2개 부문·Top poster 2개 부문 수상의 영예를 거뒀다. 이로써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은 4년 연속 Travel grant를 수상해 저력을 인정받게 됐으며, 이에 앞서 2009년에는 무려 4개 부문을 수상해 전 세계 3위권의 쾌거를 이룬바 있다. 또한, 이번 학

장기이식센터 박관태 교수, 신장·췌장 동시이식 성공

[스페셜리포트 2]

15년간의 인슐린 주사 이제 "안녕"



15년 동안 소아당뇨로 고생하던 김승원씨(가운데), 박관태 교수(오른쪽)



장기이식센터 치료팀과 함께한 김승원씨(앞줄 오른쪽)

생체신장과 뇌사자 췌장 동시이식 성공

15년 동안 소아당뇨로 고생하던 김승원(남, 26)씨가 최근 신장과 췌장 동시이식을 받고 새 삶을 얻었다. 고대병원 이식혈관외과 박관태 교수팀은 지난 10월 15일 극심한 당뇨합병증으로 신장투석까지 받아온 김승원 씨에게 어머니 홍광자(51)씨의 신장과 뇌사자의 췌장을 동시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김 씨는 희망을 되찾고 10월 26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기존에 뇌사자의 신장과 췌장을 동시에 이식하거나 산 사람의 신장과 췌장을 동시에 이식한 적은 있었지만, 생체 신장과 뇌사자의 췌장을 동시에 이식한 것은 극히 드물다. 김승원 씨는 10살 때부터 췌장의 기능과 내분비기능이 거의 다 망가져 인슐린분비세포 파괴로 인한 인슐린 분비가 결핍되는 제 1형 당뇨(소아당뇨)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마다 손가락을 찌러 혈당 체크를 하고 직접 인슐린 주사를 들고 다니며 제 살을 찌르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등 지켜 보는 어머니 홍광자씨 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홍광자 씨는 “그동안 아이가 당뇨병으

로 힘들어 할 때마다 엄마로서 내 잘못이 너무 크다는 생각에 죄책감에 시달렸다. 수술 후 건강해진 모습을 보니 이제서야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이번 동시이식으로 기증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신장을 가족에게서 이식받는 동시에 뇌사자의 췌장을 이식받아 신장과 췌장을 두 번에 나눠 이식하는 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뇌사자의 신장을 단독 기증받으려면 평균 5~6년, 췌장을 단독 기증받기 위해서는 1~2년, 뇌사자의 신장과 췌

장을 동시에 기증받는 데에는 3~4년 정도 대기해야 한다. 박관태 교수는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가며 신장투석까지 해야 하는 김씨에게는 이식수술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며 “원래 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대기기간이 길지만 어머니의 신장을 이식 받을 수 있었고 췌장 또한 한 달 만에 적합한 기증자가 발견되어 성공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2년 반 만에 신장이식 100례 돌파하며 국내 9위, 초고속 성장

한편, 고대병원은 장기이식활성화를 통해 수술 잘 하는 병원으로 부상하는 한편 대학병원이 감당해야할 중증도 위주의 치료를 통해 병원브랜드 파워를 키워가고 있다. 아울러 2년 반 만에 신장이식수술건수 100례를 돌파하면서 국내 9위 랭킹에 올라서며 장기이식 톱클래스 의료기관으로의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는 평을 원내외로 부터 받고 있다.

임상시험센터, 메빅스와 MOU 체결



고려대병원 임상시험센터(센터장 인광호)와 (주)메빅스(대표이사 임동석)가 임상시험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상시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2011년 11월 03일 오전 11시 고대 안암병원 임상시험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MOU 체결식은 고대안암병원 인광

호 임상시험센터장, 최재걸 교수, 김병수 교수, 김신곤 교수, 이준영 교수, 메빅스 임동석 대표를 비롯한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임상시험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기술 교환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Δe-IRB 시스템 구축 Δ전자 임상시험운영기반 구축(eClinical Trial Platform) Δ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광호 센터장은 “고려대 안암병원 임상시험센터는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지원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시설을 비롯한 연구환경은 국내 최고수준으로 완비되어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전자 임상시험운영기반 구축을 추진하게 되면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안암병원 임상시험센터는 그 동안 해외 여러 솔루션을 검토했지만, 유전적배경 및 의료환경이 다른 국내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국내 선두자인 메빅스와 협력하게 됐으며, 임상연구데이터 관리시스템(MEBICA)을 바탕으로 국내 임상시험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위로의 손' 제막식 거행



고려대병원은 10월 21일 오전 9시 30분 3층 로비에서 '위로의 손' 제막식을 가졌다. '위로의 손'은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강희덕 교수의 작품으로, 현재 병원 로비 중앙에 전시되어 있는 '치유의 손'에 이은 안암병원에 기증된 두 번째 작품이다. 이번 기증은 환자들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 희망과 의지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작품은 누군가를 향해 자비를 베푸는 손, 누군가를 위로하는 장면을 형용한 것으로 그 손에는 상심한 사람을 어루만지고 깨진 사람을 품어주는 사랑이 담겨 있다. 제막식에는 강희덕 교수와 함께 손창성 의무부총장 서리, 김창덕 병원장, 권병창 경영관리실장을 비롯한 원내 보직자들과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강희덕 교수는 “투병에 지친 환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창덕 원장은 “뜻 깊은 작품을 기증해주신 강희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작품이 내원하는 환우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조경환 교수, 대한가정의학회 차기 이사장 선출



“학회 발전잠재력 극대화 위해 노력할것”

가정의학과 조경환(曹慶煥, 52) 교수가 최근, 대한가정의학회 차기 이사장에 선출됐다. 차기 조경환 이사장의 임기는 2013년 12월부터 2년간이다. 대한가정의학회는 1980년 창설된 이래로 현재 전국 약 7000여명의 가정의학 관련 의사가 활동중인 전문학회로, 적극적인 후학양성과 왕성한 학술활동을 보이며 차세대 한국 의료의 견인차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조경환 차기 이사장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 대한가정의학회가 가진 발전잠재력을 바탕으로 학회와 그 구성원의 위상을 높여 나갈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일차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경환 교수는 고대의대를 졸업하고 90년부터 현재까지 고려대 가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대한가정의학회 학술, 고시, 교육, 간행, 총무이사 등 굵직한 이사직을 모두 역임하고, 대한노인병학회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보스턴 하버드의대 브리검병원 노인병과와 노인병교육프로그램의 자문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럽 노인병학회에서 한국을 대표하여 국제 편집위원으로 일하는 등 내외적으로 다양한 학술활동을 펼치며 가정의학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최근 하버드의대 교수진과 ‘노인병학 교과서’를 발간하여 현대 노인병학의 주요쟁점과 최신치료기법을 서술하는 등 노인병학의 대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

협력병원 직원 초청 셀프 리더십 교육 실시



고려대병원은 지난 27일 오후 7시 8층 중회의실에서 협력 병원 원장 및 직원들을 초청하여 셀프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협력 병원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행사로 21개 협력 병원 원장 및 직원 4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

었다. 이번 강의는 LS미래원 정영재 강사가 ‘나를 찾아 떠나는 리더십 여행’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협력병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김창덕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암병원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협력병원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협력병원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교육자 중 한 명은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멋지고 값진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유익한 강좌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바램”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객서비스팀에서는 교육과 동시에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내용의 만족도, 충실도, 강사에 대한 의견, 개선해야 할 부분을 조사하였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진료협력센터 이기형 센터장은 “협력병원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할 예정이다”라며 “향후 피드백을 받아들이어 보다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려 하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

호스피스회, '2011 사랑의 바자회'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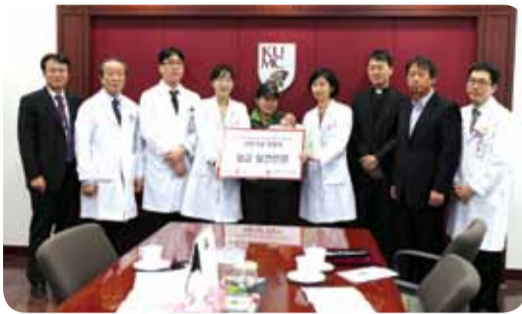


호스피스회(회장 종양혈액내과 신상원)는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3층 로비에서 「2011년도 사랑의 바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으며 수익금 4,687,000원 전액을 호스피스 암환자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바자회는 교직원들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후원받은

총 1,000여개의 기증품으로 운영되었다. 이들 물품은 의류, 서적, 완구류 등으로 다양했으며 교직원과 병원을 찾은 환자 및 보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신상원 회장은 “좋은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어서 더욱 의미 있는 바자회가 되었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종고를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암병원 호스피스회는 1995년 발족된 이후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왔다. 정기적인 이발봉사, 바자회 등의 실질적인 봉사활동과 더불어 학술대회 및 교육, 강좌 등을 펼치면서 꺼져가는 생명에 편안한 안식을 주는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

병원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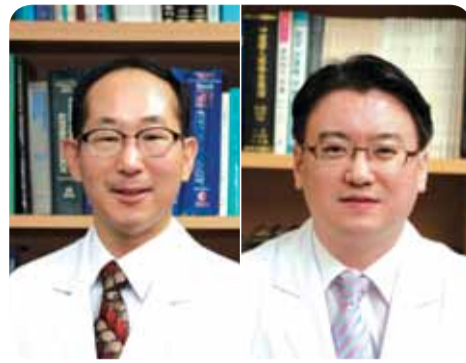
“미숙아로 태어난 작은 생명 위한 불 밝혀”



고려대병원과 한국아이닷컴이 지난 11월 15일(화) 극소 미숙아로 태어났던 존 안젤로 라미레즈(1)에게 1,000만원의 희망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창덕 안암병원장과 한국아이닷컴 관계자, 안젤로의 어머니인 노니리(30)씨가 건강해진 안젤로와 함께 참석

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지난 7월 28일 태어난 존 안젤로 라미레즈는 어머니 뱃속에서 28주 밖에 채우지 못한 채 미숙아로 세상과 처음 만났다. 1.28kg의 극소 저체중 출생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 반가량을 보내야 했던 안젤로는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 폐동맥 고혈압 등 각종 미숙아 증세를 겪어야 했다. 이후 설상가상으로 서혜부 탈장 증세가 발병하여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안젤로의 어머니인 노니리씨와 아버지 레네씨는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온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안젤로 아버지 레네씨가 120만원씩 받는 월급으로는 가족들의 생계를 꾸리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태에다가 안젤로 부모의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정부로부터는 일체의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힘든 형편을 알게 된 병원은 한국아이닷컴과 협력해 이 가족을 돕기로 결정했다. 안젤로의 안타까운 소식은 10월 20일자 한국일보에 소개됐고, 이 소식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ARS를 통해 안젤로의 진료비를 모금하게 됐다. 📖

산부인과 김탁·안기훈 교수팀, 국내 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산부인과 김탁(왼쪽)·안기훈(오른쪽) 교수팀이 지난 10월 23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36차 대한폐경학회 학술대회'에서 호평을 받으며 최우수 논문상(청화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김탁·안기훈 교수팀은 이번 논문에서 바륨이 인간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골모세포로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음을 밝혀내 많은 학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김

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바륨이 인간 중간엽 줄기세포의 골모세포분화에 있어 유전자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며 “바륨은 인간 중간엽 줄기세포의 골모세포 분화를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스트론튬과 마찬가지로 바륨 역시 골형성에 있어 중요한 인자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 안기훈 교수는 지난 8월 30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일본산부인과학회에서 여성골반 장기탈출증 환자에서 WRN 및 Fibulin-3 유전자의 발현양상을 밝혀내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산부인과 송재운 교수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일본산부인과학회에서 난소로 전이된 충수돌기의 술잔세포 유암종에 대한 증례를 발표해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산부인과 과학 분야에서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고려대 안암병원은 뛰어난 임상역량을 바탕으로 최고의 연구성과들을 발표하고 있어, 산부인과 질환 치료에 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박관태 교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 발간



이식혈관외과 박관태(42, 朴權泰)교수가 최근, 선교활동 체험수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 (두란노, 308p, 12,000원)을 출간했다. 이 서적은 ▲부르심 ▲기슴 뛰는 인생 ▲하나님의 몽골행진 ▲내려놓아라 ▲새로운 부르심 등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친했던 의사친구의 유언에 따라 그를 대신해 몽골 등지에서 펼친 굴곡진 의료봉사활동을 담담하게 담아냈다. 저자인 박관태 교수는 장기이식 전문의로 대학과 병원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틈만 나면 몽골, 아이티, 아프리카, 카자흐스탄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느 곳이든 날아가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박관태 교수는 국제협력의

사(KOICA)로 몽골에서 펼친 사투를 건 봉사활동기는 흥미진진하다. 몽골 사람들도 잘 가지 않는 차른족의 마을로 10시간 동안 말을 타고 가서 진료하기 일수였고, 서쪽 끝 카자흐족에게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박관태 교수는 장기이식분야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촉망받는 외과의사다. 지난 2월에는 국내최초로 세번째 장기이식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대상으로 췌장이식을 성공시키는가 하면, 최근에는 생체 신장과 뇌사자 췌장을 동시에 이식시키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작년엔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

산부인과 이규완 교수, ‘노화방지의학’ 발간



산부인과 이규완(李揆琬, 64)교수가 최근 ‘노화방지의학’ (군자출판사, 315p, 40,000원)을 출간했다. 이 서적은 ▲노화란 무엇인가 ▲노화와 호르몬 ▲노화의 임상적 접근 등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화방지의학의 주요쟁점과 최신치료기법을 서술하고 있다. 노화방지에 관심 있는 전문의 뿐만 아니라 전공의 및 의대생들까지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 노화방지의학의 종합적인 접근에 매우 유용한 참고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책은 우리나라에서 노화방지와 관련하여 학술진흥과 건강증진에 앞장섰던 故 구병삼 교수가 발간한 「노화방지의학 기초적 개관 및 임상진료」를 더욱 체계적으로 전문화시켜 엮은 것이다. 그동안 노화방지의학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이에 걸맞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재가 거의 없다는 점이 학문 발전의 걸림돌이었으나 이번 책 발간을 계기로 노화방지의학 분야의 본격적인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자 이규완 교수는 “한국도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삶의 질적인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노화방지의학을 통해서 보다 건강하고 나은 삶을 영위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선행 교수,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에 취임



“산부인과의 열악한 입지 개선할 터”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김선행(金善行, 63) 교수가 최근 개최된 대한산부인과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20대 신임 이사장에 취임했다. 신임 김선행 이사장의 임기는 10월 2일부터 2년간이다. 김선행 교수가 이사장을 맡게 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947년 산부인과학의 연구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학술단체로 현재 국내 전체 산부인과 전문의 및 전공의 7천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산부인과 분야 모학회이다. 김선행 이사장은 “최근, 특히 어려운 시기에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전 회원의 중의를 모아 산부인과의 열악한 입지를 개선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이사장은 1973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현재 안암병원 불임클리닉을 맡고 있다. 고대 안암병원 불임클리닉은 1984년 국내 최초로 정자은행을 설립, 냉동정자를 이용한 체외수정(IVF)으로 첫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키는 등 불임치료 분야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폐경여성의 건강', '임상 내분비학'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였고, 대한남성과학회, 한국발생생물학회, 대한생식의학회, 대한보조생식술학회 등에서 부회장 및 회장을 역임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도장 분야에선 내가 최고, "고비고비 넘기니 어느새 40년 세월 훌쩍" [이부서 이사람]

"병원 문짝하나 복도벽면, 의료기기에 제 손 안탄 곳이 없죠." 시설팀 김명옥 도장명인



시설팀 김명옥 주임기능사

“지내고 나니 언제 이만치 왔나 싶어요. 30~40 대는 아이들 공부시키느라 정신없이 지냈고요. 50대가 넘으니 세월이 참 빨랐구나 싶네요”라며 “모든 일에든 고비가 있기 마련이지요. 어떤 일도 쉬운 건 없어요. 고비가 있을 때마다 참고 견디는 힘이 중요하지요. 인내로 이만큼 온 셈입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설팀 도장실 김명옥(56세) 주임기능사는 1971년 3월에 입사해 총 40년 간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해왔으며 정년까지 2년을 남겨둔 상태이다.

김명옥 주임기능사는 현재 도장실에서 벽면, 비상구, 의료기기 등 페인트작업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달려가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회사에 입사할 때만 해도 도장실은 페인트 냄새 등으로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꺼려 했던 분야다. 그러나 그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돼 보겠노라고 다짐을 했고, 주어진 일마다 최선을 다하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았다.

"도장이 생각보다 고난도 작업입니다. 손과 눈 감각이 탁월해야 하고, 작업장 온도가 얼마인지, 페인트 점도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오랫동안 현장에서 익혀온 감각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0년동안 근무해오면서 흘린 구슬땀만큼이나 고대병원에 대한 그의 애정은 남다르다. 직접 환자를 대하지는 않지만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불편함 없이 치료받기 위해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편리하고 좋은 시설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기도 한다. 때로 정말 지저분하고 어려운 일이나 아주 위험한 작업에 부딪힐지라도 오직 병원발전을 위한 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40년동안 묵묵히 도장일을 해왔다.

최근 그는 자신이 가진 노하우를 하나라도 더 후배 기능사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2년 후 내가 퇴직해 없어도 그 사람 덕분에 도장실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후배들에게 기술 전수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느림으로의 회귀, '슬로시티 충남 예산' [여행안내]

(Slow City)

광속으로 내달리는 세상 속에서 잠시 마음 놓아둘 곳을 찾는다면, 우리나라 6번째 슬로시티로 지정된 충남 예산에서 느림으로의 회귀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

충남 예산군 대흥면과 응봉면은 지난해 9월 국내에서 6번째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되었다. 예산이 슬로시티로 가입되기 전까지 국내 슬로시티는 담양, 신안, 완도, 장흥, 하동 5개 군이었다. 슬로시티는 대도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유마을을 의미한다. 마을 안에 현대적 시설이나 첨단시설투자를 최소화하면서 기존의 전통적 경관을 유지하고 활용하는 것. 예산은 황토사과, 예당저수지, 민물어죽, 예당쌀 등이 슬로시티 요소로 대표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시골의 정겨운 풍경들이 발걸음을 느리게 만든다.



대흥동헌

사과나무길 걸으며 그윽한 향에 취해

예산에서 유명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사과. 이곳은 황토사과로 유명한데 사과 재배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이 황토인데다가 일조량을 받기에 좋은 지형을 갖고 있어 햇살을 한껏 받아 그 맛이 새콤달콤 맛있다는 것이다. 예산 와이너리가 터잡고 있는 은성농원(041-337-9585, <http://cafe.daum.net/eunsungapple>)은 예산 황토사과 특구이다. 양조장은 1주일 전에 예약하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성인들을 위해서는 와인제조과정을 둘러보기와 와인 시음하기, 청소년을 위해서는 사과파이와 사과잼 만들기를 진행한다.

net/eunsungapple)은 예산 황토사과 특구이다. 양조장은 1주일 전에 예약하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성인들을 위해서는 와인제조과정을 둘러보기와 와인 시음하기, 청소년을 위해서는 사과파이와 사과잼 만들기를 진행한다.

붕어와 새들의 보금자리, 예당저수지

예당저수지는 붕어낚시터로 유명하다.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예당저수지에는 잔잔한 수면 위에 강태공들을 위한 수상좌대가 섬처럼 떠 있다. 청둥오리, 재두루미 등 새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한 이 곳은 이른 아침, 또는 해질 무렵 수면이 햇살에 물들어 아름다운 장관이 연출된다. 저수지가장자리에는 우거진 수풀이 초록빛, 노란빛을 내며 저수지 수면과 맞닿아 있어 인상적이다. 최근 중류권인 대흥면 부근에 생태공원도 만들어져 군이 낚시를 즐기지 않더라도 저수지 주변을 산책하기에 좋다. 예당저수지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을 찾았다면 봉수산자연휴양림에 오르면 된다. 대흥동헌 뒤편 산길을 구불구불 올라가면 봉수산자연휴양림에 닿을 수 있는데 그 곳에 오르면 드넓은 저수지가 한 눈에 들어온다. 저수지 부근에는 민물어죽을 파는 곳들이 종종 눈에 띈다. 민물어죽은 예산의 슬로푸드로서 예당저수지에서 갓 잡아올린 여러 가지의 민물고기를 가마솥에 푹 고은 후 살만 골라내어 고추장, 된장을 풀어 끓인 뒤 쌀과 수제비, 각종 양념을 넣어 만든 별미음식이다.

된다. 대흥동헌 뒤편 산길을 구불구불 올라가면 봉수산자연휴양림에 닿을 수 있는데 그 곳에 오르면 드넓은 저수지가 한 눈에 들어온다. 저수지 부근에는 민물어죽을 파는 곳들이 종종 눈에 띈다. 민물어죽은 예산의 슬로푸드로서 예당저수지에서 갓 잡아올린 여러 가지의 민물고기를 가마솥에 푹 고은 후 살만 골라내어 고추장, 된장을 풀어 끓인 뒤 쌀과 수제비, 각종 양념을 넣어 만든 별미음식이다.

고즈넉한 사색의 공간, 대흥향교, 대흥동헌

대흥동헌은 조선 태종 7년인 1407년에 창건된 관아이다. 대흥동헌은 대흥면사무소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어서 관광객 이외에도 민원을 보러 면사무소에 왔다가 잠시 둘러보는 사람도 많다. 대흥동헌에는 앞뜰에는 곤장 등 관아의 형벌기구가 놓여져 있고, 안뜰에는 크고 작은 장독들이 가득해서 옛정취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글 | 원내기자 강용길(핵의학과)



대흥동헌



예당저수지



은성농장



예당저수지

심근경색의 위험요인 여섯가지에 대비하라

[의학정보]

심근경색 위험요인, 심근경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심장혈관의 안쪽 벽은 내피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화현상 혹은 흡연, 고혈압, 당뇨나 고지혈증 등의 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손상을 받게 될 경우 죽상경화, 흔히 말하는 동맥 경화가 진행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이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다. 삶이 풍족해지고 식생활이 서구화 되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의 생활습관 병이 증가했고,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가 일상화되어 이 요인들이 동맥경화와 혈관내피세포 손상을 촉진하는 원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허혈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는 고령, 가족력,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비만, 폐경 등으로,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그 위험요인에 대해 많은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위험요인들 중 적지 않은 부분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고위험군에 속하는 자신의 위험요인들을 찾아내, 증상 발현 이전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예방적 약물치료를 병행하여 위험인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고지혈증

'소리없는 살인자' 라고도 불릴만큼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증가되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증상이 없으며, 또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평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들은 특히 겨울과 꽃샘추위가 기승하는 초봄에 심혈관질환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임을 알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금연, 그리고 체중 조절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2. 고혈압

고혈압 환자들은 "고혈압약은 한 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하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는 다소 엉뚱한 논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고혈압을 진단받기 되면 대부분의 평생 동안 혈압약을 복용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고혈압의 치료는 치유가 아닌,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의 개념이다.

3. 흡연

흡연은 혈관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세포 속에 축적시켜 동맥경화증의 발생을 높이는 주요 위험인자로 담배의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말초 혈관을 수축하고 맥박을 빠르게 해 혈압을 상승시킨다. 또한, 흡연은 각종 독성 물질에 의해 저밀도지단백(LDL)콜레스테롤의 양을 증가시켜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킨다. 점도가 높아진 혈액에서는 혈전이 잘 만들어져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키게 된다.

4. 당뇨


당뇨병 환자는 협심증이 있어도 통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세가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말초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질환의 심전도 소견 또는 5가지 위험 인자(①총 콜레스테롤 240mg/dl 이상,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160mg/dl 이상 또는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40mg/dl 미만, ②고혈압, ③흡연, ④조기 심장

병의 가족력, ⑤미세단백뇨 혹은 단백뇨 양성 소견) 중 2가지 이상의 위험인자에 해당되는 경우, 심전도 검사만으로는 심장의 합병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운동부하 심전도, 심장 초음파, 필요시 관상동맥 조영술 등과 같은 정밀 검사가 권장된다.

5. 비만

비만이 심혈관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단순한데, 심장이 초과된 체중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근육량이 적은 동양인은 체형상 살이 찌면 지방이 전신에 퍼지기 보다 복부에 몰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전신비만보다는 복부비만이 문제가 된다. 비만(BMI 30kg/m² 이상) 또는 과체중(BMI 25~29kg/m²)은 이상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이러한 위험 요인을 보유하지 않은 비만 또는 과체중인 사람에서도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가족력

심장병에 대한 가족력을 살펴보면, 가족 중에 심장병 환자가 있으면 심장병 발생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 2 배정도 높게 나타나며, 흡연·고지혈증·고혈압·비만·운동부족 등의 가족력이 방아쇠 역할을 함으로써 발병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또한, 가족 중 남보다 이른 나이(남성 55세 이하, 여성 65세 이하)에 심장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80세에 심장병으로 숨진 경우라면 심장병에 걸리기 쉬운 나이이기 때문에 가족력이 없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글 | 심혈관센터 임도선 교수
외래 | 심혈관센터 02)920-6714



[서적소개]

아프니까 청춘이다

인생 앞에 홀로 선 젊은 그대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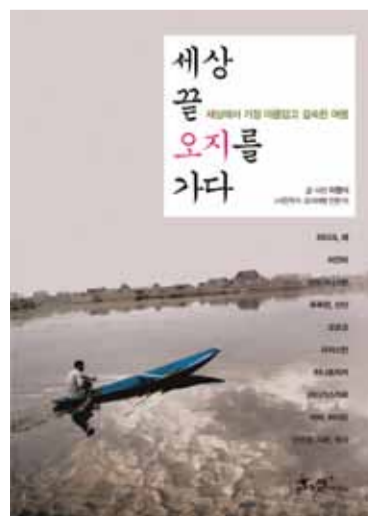



신간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이처럼 불안한 청춘들에게 보내는 인생 선배의 메시지다. '늘 곁에 두고, 인생의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두고두고 읽고 싶다', '교수님의 글을 읽다보면 다시 뜨끔거리고, 시작하게 된다!' 수많은 청춘들이 그의 글에 열렬한 공감을 표하며 여기저기 퍼다 나르고, 그를 '나의 멘토'라 칭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 책은 인생 앞에 홀로서기를 시작한 이러한 청춘들에게 큰 미래의 그림을 그려줄과 동시에,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현실적이고 중요한 조언 역시 빼놓지 않는다. 그들의 든든한 디딤돌이자 이정표가 될 이 책은 미래를 향해 발을 내딛는 아들, 딸, 후배, 조카, 제자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세상 끝 오지를 가다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천국을 가다!



해외여행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1970년대부터 세계 곳곳을 탐험하기 시작한 오지여행 전문가이자 사진작가인 저자가 30년간 발굴해낸 인류 최후의 보고(寶庫) 10선(選)을 소개한다. 1년에 딱 한번 신기루처럼 열렸다 사라지는 세계 최대의 낙타시장, 문람축제를 보기 위해 오채투지를 하며 찾아오는 티베트족 사람들, 붉은 달이 뜨는 오채성과 투루판, 세상에서 가장 진기한 장례식을 구경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의 타나토라자, 외발로 노를 젓는 뱃사공을 만날 수 있는 인레 호수 등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깊은 곳,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천국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글 | 원대기자 조규은(종합건강진단센터)

